

영원한 것이 있다면 불심 자성 본성 뿐



동원 스님은 ...

1966년 입산 출가했다. 월하 스님을 법사로 해각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고암 스님에게서 비구계를 수지한 스님은 40년 넘는 세월을 붓을 들고 수행하는 인생을 살아왔다. 2009년 2월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보유자로 지정됐다.

었다. 그렇게 하루, 하루 시간은 흘렀고 청년은 자연스레 스님이 됐다.

전생의 '업'이라 표현한 동원 스님의 말처럼 청년이 스님이 된 것은 필연이었다.

스님은 "자유, 경제 좋은 곳, 그림과 대금을 좋아한다"면서 "스님이 되고 나니 좋아하는 네 가지를 모두 하고 살게 돼고 또, 부처님 공부하다보니 세상 돌아가는 원리가 훤히 보여 다른 세상일은 싱거워졌다"고 말했다.

<금강경>의 "무릇 세상에 존재하는 상은 모두 허망하다(凡所有相 皆是虛妄)"는 것을 동원 스님은 체득했기 때문이라.

‘잘 사는 길’ 궁금해 경주 가던 길 들른 통도사에서 출가

덕이 없다면 관음기도, 지혜 부족하면 문수기도하라

단청장·사명암 감원 동원 스님



세 불을 알리는 입춘(立春)이 지났다. 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춘이지만 유난히 추운 날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가 회복 중이라는 정부 인사의 발언과 달리 "건설업 체감경기 10개월 만에 최저"라는 류의 보도가 이어지는 것처럼, 봄은 왔는데 여전히 춥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동원 스님(전통무형문화재 단청장 제48호)을 만나러 양산 통도사 사명암을 향하던 그 날도 추웠다. 서울은 영하 9도 수은주는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서울보다 남쪽인 양산은 얼음 없는 영상의 기온이었다.

서울에서 추위에 움츠린 몸을 펴게 돕던 의부가 양산에 이르니 이마에 땀방울을 맺게 했다.

장지는 '제물론(齊物論)'에서 "도의 관점에서 보면 선악(善惡)·미추(美醜)·아타(我他)의 구별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좁은 땅덩어리라고 하지만 남북의 공기가 확연히 다른 것을 보면 세속의 삶은 구별이 없을 수 없다. 또, 구별을 해야 서로 다름을 알

고 준비할 수 있으리라.

통도사에 이르니 "불보종찰(佛寶宗刹) 국지대찰(國之大刹)"이라 쓰인 글이 눈에 들어온다. "부처님의 으뜸가는 사찰이요, 나라의 큰 절"인 통도사는 사찰을 창건한 자장 율사를 비롯해 구하·경봉 스님 등 셀 수 없이 많은 선지식이 머물던 곳이다.

본사만큼 빼어난 암자가 영취산 기슭과 골짜기에 자리한 것도 통도사의 자랑이다. 통도사에는 빼어난 풍광과 저마다의 불연(佛緣)을 간직한 13개 암자가 있다. 장독대와 들꽃이 유명한 서운암, 금와보살이 나뉜 자장암, 재미있고 독특한 도깨비상이 눈길을 끄는 안양암을 비롯해 백련암 옥련암 수도암 서축암 금수암 반야암 극락암 비로암 백운암 그리고 사명암까지.

일주문에서 차를 달려 5분쯤 지났을까? 본사에서 왼편으로 1km를 달리니 이정표가 보인다. 왼편으로 서운암 백련암 옥련암과 함께 사명암 글씨가 보였

고, 이내 사명암에 이르렀다.

조선 선조 6년(1573) 사명 대사가 주석하던 곳에 이기·신백 두 스님이 중창했다는 사명암의 첫인상은 "아름답다"는 상투적인 표현 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었다. 도량은 군더더기 하나 없이 정갈하고 담백한 느낌이었다. 단청장인 동원 스님이 주석하는 곳이라 무엇인가 특별한함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그저 부질없는 나그네의 망상이었을 뿐. 그냥 어느 절과 같이 '아름답을' 뿐이었다.

하지만 동원 스님은 어느 스님과 달랐다. 인터뷰 내내 스님은 청산유수와 같은 선담(禪談)을 주저 없이 쏟아냈다. 그림 그리는 스님이라 조용할 줄 알았던 나그네의 선입견이 사명암의 여법한 단청에 이어 또 한번 깨어져 나갔다.

차 맛도 달랐다. 스모키 향 비슷한 내음이 찾던 가득한 햇거나무차. 동원 스님은 "복이나 축이고 시작하자"며 비싼 걸음으로 찾아온 나그네를 잠시 쉬게 했다.

"전생의 업인지 그냥 젊이 좋았어요." 스님은 자신이 출가를 하고, 40여 년을 한결 같이 붓을 들고 살아온 삶이 전생의 업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원 스님은 나이 열여섯에 모친에게서 여비를 받아 무작정 길을 나섰다. "어찌 사는 것이 잘사는 길일까?" 하는 어린 나이에 쉽지 않은 고민을 했던 청년은 그렇게 고향인 대전을 떠났다. 집을 나선 청년은 그 길로 구름과 물처럼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자유롭게 떠도는 운수행각(雲水行脚)의 삶을 살게 됐다.

청년은 내장산 백악산 무등산 유달산 등을 거쳐 제주도를 찾아 한라산에 올랐다. 그가 물에 올라 찾은 곳은 부산이었다. 영도다리에 오른 청년은 "경주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버스터미널을 찾았다. 때마침 버스터미널에는 양산 통도사행 버스가 출발을 앞두고 있었고, 경주를 가는 길목이라는 생각에 청년은 통도사행 버스에 올랐다.

통도사에 도착한 청년은 이상했다. 처음 찾은 곳이었으나 전혀 낯설지 않았다. 통도사가 주는 푸근한 느낌에 청년은 묵어가야겠다고 생각했고, 흥법 스님에게 묵어갈 방을 물었다.

흥법 스님은 청년에게 "어디서 왔나?"고 물었다.

"대전에서 왔습니다."

"너 여기서 살면 좋겠다."

청년에게는 스님의 그 말씀이 인생의 지남철 같았다. 다음날 경주로 떠나려 했지만 청년은 떠날 수 없

하고 싶은 네 가지를 모두 하며 살 수 있게 한 출가의 길이었기에 스님은 그 불은(佛恩)에 보답코자 새벽 여불만을 꼭 챙겨 왔다. 그 때마다 동원 스님은 참회와 발원과 깨달음을 부처님 전에 기도했다.

살아가면서 잘못 듣고 행함을 참회했고, 어떻게 살아야 인으로 마음을 잘 닦고 밖으로 좋은 인연을 지을지를 발원했다. 잠들면 어디로 가는지 깨고 나면 한량없는 망상을 그치고자 깨달음을 추구했다.

동원 스님은 대자유인이다. 불화를 그리는 짤짤이 산을 뒀다. 출가 초기에는 15년을 운수납자의 본분에 충실하게 설악산, 지리산을 필필 날아다니며 지 내기도 했다. 봄·가을에는 그림을 그리고 여름이면 바닷가를 찾아 자연을 품어 안았다. 산을 타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도 세월은 흘렀다.

40년 넘게 들어온 붓은 이제 처음에 들었던 재미는 간 곳없고 오랜 벗처럼 그저 '업'이 됐다. 지금은 '업'이 돼버린 행화를 그리게 된 것은 우연이었다. 통도사의 매력에 흠뻑 젖어 갓 출가한 동원 스님은 도량 서까래에 칠해진 단청이 색동저고리처럼 아름답게 느껴졌다. 어느 날 스님이 행자방의 관음도를 펜으로 그렸을 때, 대중 모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어릴 적부터 미술에 관심과 소질이 있던 것도 아니

전통불교천지대왕종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의 대통합 선포



이 땅의 모든 종교신앙인들이여! 진리의 문을 활짝 열고 종교의 벽을 헐자. 반만년 민족신앙을 오늘 다시 숭앙하자. 한겨레 한터에서 한 이치로 함께하자.

이 땅의 존귀하신 종교 신앙인 들이여!

국조 단군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수많은 종교가 탄생하여 3생을 오가며 절대적 존재로 때로는 미혹한 모습으로 성현, 도사, 도인, 신주, 만신, 신발 등으로 불리며 8부중생과 더불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력화된 기성종교에 밀려서 미신이란 이름으로 폄하되고 소외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와 더불어 종교로서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한축을 이끌어 온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인 석연 대종사께서 전법에 진력하시며 이 땅의 전통(민속)종교인 및 철학인들의 권익과 보장책을 숙고하던 중, 이 세상에 절대적 유일신은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을 접목하여 대도를 구성하고 홍익인간 이화세계사상으로 극락정도를 구현하는 새로운 회상을 열고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을 창종하여 선포하니 우리모두 이 결사에 동참하여 교화의 대열에서 함께하고 역랑과 사명을 다해 새로운 세상을 열시다.

전통불교천지대왕종과 함께하실 신앙인 여러분을 열리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종교의 성직자, 신도, 교도, 법사, 전도사, 교회사, 포교사, 철학인, 도사, 도인, 작명가, 신발, 만신님들 차별없이 환영합니다.

총본산 수련도장 설악산 불탑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산 100-1번지 / 전화 033)671-7751 / 핸드폰 019-248-7751

개창주(開創主) 석연 대종사 창종위원 : 지선, 무생, 무풍, 천풍

- 입종 및 입회원서 접수 : 본종 총본산 수련도장 불탑사 의 종단에서 지정한 교구청 및 특설사무처
- 동참 특전 (소정의 서류제출 준비하고 등록한 분에게는)
 - 본 종단 의식교전 및 종현 종법 제공
 - 관할관청에 등록하여 재산관리 세무회계를 주선
 - 체계화된 교육으로 종교지도자로 양성함
 - 사찰, 사암, 포교당등록증, 법위증, 사증 등을 교부
 - 종단의 각종 회의에 참석 특전, 중요임원 출마권과 선출권 부여함
 - 행정, 교육, 운영 관리에 뜻 있는 분 특별우대함